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2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바람 부는 세상에서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하루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내 몸의 빛과 향기
4. 법정 스님 소참 법문
수행하는 데에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5. 법정 스님 흔적
장삼長衫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근심 떠난 편한 마음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행복의 얼굴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2월 1일 발행, 통권 324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바람 부는 세상에서

지난밤 이 산골짜기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 났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도록 바람이 휘몰아쳤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 보니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창문을 가렸던 비닐이 갈기갈기 뜯겨 나가 있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재를 쳐내는 데 쓰는 들통도 개울가에까지 굴러가 있었다. 대단한 바람이었다.

내일모레가 우수雨水인데 사나운 바람이 부는 걸 보면, 겨울이 봄한테 자리를 내주고 물러갈 날도 머지않았나 보다.

바람은 왜 부는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흐름인 바람은 움직임으로써 살아 있는 기능을 한다. 움직임이 없으면 그건 바람일 수 없다.

움직이는 것이 어디 바람뿐이겠는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그 나름으로 움직이고 흐른다.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이는 것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도 움직이면서 안으로 끊임없이 수액을 돌게 한다. 해가 뜨고 지는 거나 달이 찼다가 기우는 것도, 해와 달이 살아 있어 그런 작용을 한다.

우주의 호흡과 같은 이런 움직임과 흐름이 없다면 사람 또한 살아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멈추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멈춤과 고정됨은 곧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움직임과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

이면서 변화한다. 이런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서 새롭고 신선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벌집을 쭈서 놓은 것처럼 시끄럽고 요란하다. 거액의 대출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 우리 사회에서 처음 일어난 일처럼 야단스럽다. 정치 권력과 재력이 한데 어울려 빚어 놓은 부정과 비리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뭔가 그전과는 좀 달라질 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달라지기는 고사하고 갈수록 태산인 그 혼미 앞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믿었던 도끼에 발을 찍히는 배신감마저 느껴야 한다.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환멸 또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 정도가 이제는 극에 달한 듯싶다.

우리는 요 몇 해 사이를 두고 끊임없이 이런 비리와 부정 앞에 국민적인 공지와 나라의 체면을 여지없이 짓밟혀 왔다. 그런데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비리와 부정 앞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기이한 현실이다. 모두가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라고만 발뺌을 하고 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위태로운 삶인가.

한때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겠다고, 세계 일류 국가를 이루겠다고 베풀고 장담하던 국가적인 의욕과 국민적인 희망은 1997년 2월 현재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실체를 잘못 인식하고 떠들어 댄 정치꾼들의 분홍빛 선전에 지나지 않은 허세였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려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비극적인 상황 아래서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요즘 입만 열었다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불경기와 불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울적하고 어두운 표정들을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이 불경기이고 불황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현상이 곧 인간의 전체적인 생활현상과 동일한 것일 수 있을까.

인간생활에는 경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 이 밖에도 경제 외적인 현상이 다양하게 있다.

앞서 살다 간 우리 선인들은 경제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넉넉지 않았던 경제적인 현상을 무난히 극복하면서 사람답게 살 줄을 알았다.

그동안 우리가 생명을 기르고 지탱해 주는 식물들을 함부로 버리면서 흥청망청 너무 과분하게 살아왔던 자취를 이 불경기와 불황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 온 날들이 우리들 분수에 알맞은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하루하루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 자신과 이웃에게 복과 덕을 심는 것이었는지, 그 복과 덕을 탕진하는 것이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의 고리다. 오늘의 불경기와 불황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정, 혼란과 혼미는 외부세계

에서 주어진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순간순간 뿌려서 거둔 열매다.

어떤 작용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작용은 그것을 지탱하는 반작용이 필요하다. 작용은 양극이고 반작용은 음극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쇠붙이인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은 거기 공기의 반작용(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공중에 뜰 수 없다. 새들이 공중을 나는 것도,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도 이런 현상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혼란과 혼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같이 곰곰이 생각해 볼 과제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어지러운 이런 세상이야말로 진짜 좋은 세상好時節 아닌가!"

무사안일한 태평세월보다는 차라리 난세야말로 그 저항을 통해서 살맛 나는 세상이란 말일 것이다.

세계 일류 국가를 이루겠다는 허황하고 촌스런 꿈을 꾸기 전에 그 사회 구성원이 상처받지 않고 활기차게 기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염원해야 한다. 사회나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 즉 정부 관료와 정치인과 기업인 등 그리고 당신과 내가 지닌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변혁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당신의 '속사람'도 불황을 타는가?

1997년.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보세요

하루

2월 1일이 설날입니다. 법정 스님이 준비하신 설 선물은 뭘까요? ‘하루’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하루인데 그게 무슨 선물이나고요? 하루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제 스님 설명을 들어 보세요.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다 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전부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눈과 빛이고, 귀와 소리이고,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생각과 현상이다. 이것들을 이룸하여 일체(一切)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 말고 다른 일체를 말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뿐이므로 다른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 설명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일체를 이루고 있고, 전부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 나가고 있는 이 자체가 인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일상사를 떠나서 따로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일상적인 경험, 바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상당히 의아해집니다. ‘왜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왜 이것만이 전부란 말인가’.

설법은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기(隨機) 설법입니다. 응병여약(應病與藥),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관념적이기 쉽습니다. 눈앞의 일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저 부처님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만 생각하고, 이 뭐꼬 화두만을 최고 가치로 여긴 나머지 일상적인 일은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장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 부엌의 행주에서 쇠내가 나는지 곰팡이가 슬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절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 교회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상적인 것, 네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 나가고, 네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이것이 모두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더 신기한 것, 판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만 너무 집착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세계에 너무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어떻게 견성이 어떻게, 화두가 어떻게,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 나가면서 부딪치고 경험하는 이것이 모두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판것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루, 하루가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 있지도 않은 것에 한눈팔지 말고 모든 것, 하루를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내 몸의 빛과 향기

우리 몸의 한계와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여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2022년 1월에 이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리기 위해 부정관(不淨觀)을 닦는 방법을 <법정 스님 따라하기>에서 배워 봅니다.

친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우리는 가끔 묘지나 화장터에 따라가는 수가 있다. 평소 고인에 대한 삶의 자취를 되새기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어디까지나 ‘관객’의 입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조문이나 관객의 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친구의 차례지만 이다음은 바로우리들 자신의 차례임을 알아야 한다.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도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초기 교단의 수행자들이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리기 위해 부정관(不淨觀)을 닦은 것도, 이런 경전을 통해서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굳이 부정(不淨)한 것으로만 생각하려는 것도 육신에 대한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 살갗 속에 그와 같은 오물투성이인 이 육신을 가지고도 아름답고 어질고 착한 마음씨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몸 또한 빛과 향기를 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몸은 한편 악기와 같아서 좋은 가락을 연주하면 아름답게 울리고, 추한 가락을 통기면 추하게 울리기 마련이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소극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삶의 양식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소극적인 삶보다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 사회를 구축해 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 육신의 한계와 실상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 이런 되돌아봄이 없으면 인생이 자칫 오만해지거나 넘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의 문필가이며 사상가인 랄프 W. 트라인이 쓴 <나에게서 구하라, 내 안의 무한한 지혜와 생명을 찾아서> (원제 In tune with the infinite, 류시화 번역)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에 고개를 끄덕이었다.

네 영혼의 방에 많은 창을 달아라
우주의 광명이 두루 비치도록
좁은 생각의 문구멍으로는
저 한량없는 빛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눈먼 관념 유희 다 내던지고
하늘처럼 높고 진리처럼 드넓은
그 맑은 창으로 빛이 넘치게 하라.

그대의 귀를

저 소리 없는 별들의 음악에
태초의 소리에 열어 놓고
그대의 심장을
꽃이 해를 보고 얼굴을 마주하듯
진리 쪽으로 고동치게 하라.

보이지 않는 천 개의 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평화의 바다로
그대를 데려가리라
수천만의 눈들이
환한 빛을 보내리라.

지적인 자만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또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는 문을 막아 놓는 사람에게 진리는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다가올지 모르는 진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사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진리가 사방에서 다가온다는 것이다.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이나 흩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가 그에게 진리를 노래해 주고, 어디서나 그는 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다.

랄프 트라인은 에머슨, 소로, 휘트먼 등과 함께 동양적인 근본회귀(根本回歸) 사상에 뿌리를 둔 세계관으로서 양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책에서 그는 지네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 있게 하고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소참 법문

수행하는 데에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에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모든 마군으로써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마란 무엇입니까?
나쁜 거예요.

잠잠하게 정진하고 싶는데 자꾸 졸음이 온다거나
공연히 망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게 다 마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하잖아요?
또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고 해서
도가 높을수록 마가성한대요.

어떤 의미에서 마는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의 기량을 키우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겨요.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하고 싶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섬으로써
새로운 기량과 의지력,
내가 지금까지 갖추지 못한 새로운 그릇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것을 겉으로만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안으로 곰곰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에서 새기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관념의 유희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삶의 태도도 아니에요.
삶의 지혜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할 때
옛 성인들의 말씀을 의지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에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저마다 서원이 있잖아요.
꼭 수도자의 세계에만 서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래요. 기업을 경영하거나 장사를 하
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서원이 있어요.
이 기업을 잘 키워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서원들
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장애가 없이 모든 일이 순조
롭다면 언제 내가 그런 서원을 세웠는가 싶을 정도로
후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로써 수행을 돕는 벗으로 삼으라고
옛 성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5. 법정 스님 흔적



장삼長衫

출가해서 행자行者 생활을 마치고 계箴을 받기 위해 은사 스님을 정합니다. 그러면 은사 스님은 제자에게 법명과 발우, 가사, 장삼을 내립니다. 비로소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 스님은 먹물색을 좋아하셔서 장삼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짙은 회색이었습니다.

스님들이 스스로 승복을 지어 입을 경우에는 굳이 법명을 새기지 않는데, 여기 은사 스님의 장삼은 어느 불자가 공양을 올려서 “법정” 법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근심 떠난 편한 마음

선재동자가 말했다.

“이 해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해탈의 이름은 근심을 떠난 편안한 당(離憂安隱)이라 한다.

나는 다만 이 한 가지 해탈문만을 알 뿐이지만,
저 보살 마하살들은 그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모두 다 받아들인다.
수미산과 같이 의지가 견고해 흔들리지 않으며,
선견약(善見藥)과 같아서 중생의 무거운 번뇌 병을 치료
하며,

밝은 해와 같아서 중생의 무명업장을 깨뜨리며,
대지(大地)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좋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밝은 등불과 같아서 중생에게 지혜광을 비추며,
큰 구름과 같아서 중생에게 적멸법(寂滅法)을 내리며,
밝은 달과 같아서 중생에게 복덕의 빛을 놓으며,
하늘의 제석(帝釋)과 같아서 모든 중생을 수호한다.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재동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바닷가에 나라소(那羅素)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비목구사(毘目瞿沙) 선인(仙人)이 계신다. 그대는 그분
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

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생각했다.

‘보리는 얻기 힘들고,

선지식은 가까이하기도 만나기도 어렵다.

보살의 근기는 얻기 어렵고

보살의 근기를 깨끗이 하기 또한 어렵구나.

함께 수행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이치대로 관찰하기 어려우며,

가르침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착한 마음 내는 방편을 만나기 어렵고,

온갖 지혜를 자라게 하는 법의 광명을 만나기도 어렵
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선재동자는 길을 떠났다.

비목구사 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선재동자는

보살의 바른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보살의 청정한 행을 따라 생각했다.

보살의 복력(福力)을 늘리려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분명히 보려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출현시키려는 마음을 내고,

큰 서원을 늘리려는 마음을 냈다.

시방세계의 법을 두루 보려는 마음을 내고,

법의 참된 성품을 밝게 보려는 마음을 내고,

장애를 두루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법계를 관찰해 어둠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청정한 여의보로 장엄하려는 마음을 내고,

마군을 항복시키려는 마음을 내면서 다니다가

나라소국에 이르러 비목구사 선인을 찾았다.

큰 숲이 있는데, 그 숲속에는 아름답게 꽃을 피운 꽃나무
무와 향기로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나무, 그
리고 줄을 지어 늘어선 전단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
었다.

선재동자는 전단나무 아래 풀을 깔고 앉아 1만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비목구사 선인을 보았다. 그들은 사슴
가죽을 입기도 하고 나무껍질을 걸치기도 하고 풀을
엮어 만든 옷을 입기도 했다. 더러는 상투를 틀고 고리
를 드리운 이들이 앞뒤로 에워싸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선인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참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니 저를 진실한 도에 들게 하기 때문입
니다. 선지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법이니 여래의 지위
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배이니 지혜의 보배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
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햇불이니 열 가지 힘(+力)의 빛
을 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길
이니 열반성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등불이니 평탄하고 험한
길을 가려 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지혜에 나아
가는 다리이니 위험한 곳을 건네주기 때문이며, 선지
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양산이니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
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지혜에 나아가는 눈이니 법성
法性의 문을 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지혜에 나
아가는 밀물(潮)이니 제게 대비수(大悲水)를 가득 채워주
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불구부정

불구부정(不垢不淨)!

더럽고 깨끗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갠지스 강가에서 화장을 하고
빨래를 합니다.

우리는 갠지스 강물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갠지스 강물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오염된 세탁물을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고정관념은 고인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불구부정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법회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 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1932~2010)의 입적 12주기 추모법회를 2월 26일(음력 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성북동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합니다. 이번 12주기 추모법회는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 승복을 입은 상태로 대비하여 주기 바란다”는 스님의 생전 가르침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여법하면서도 간소하게 봉행할 예정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 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 제안 게시판(이메일을 이용하시거나 전자우편(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 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및 전자책 열람 안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의 앱(application)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 : 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설치) 홈페이지 PC 및 앱에서 활동 소식뿐 아니라 법정 스님 저서 《무소유》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외 총 21권의 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책 열람은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며, 기존 후원회원께서 홈페이지에 가입 시에는 사무국에서 후원금이 중복으로 인출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 하는 조리 활동은 못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봄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니 뜻을 함께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지원 활동 : 7일(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책 읽기 필사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12주기 추모 법회 : 2월 26일(토)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정기 재정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 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신고자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설 합동차례

일시 : 2월 1일(화)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위패 번호 1번~700번) / 설법전 (위패 번호 701번부터)

※ 설합동차례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 "주지스님의 특별 축원").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일시 : 2월 2일(수)~2월 4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입춘방은 2월 4일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삼재 : 원숭이띠, 쥐띠, 용띠

정초기도 및 수목방생법회

일시 : 2월 3일(목)~2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금강경 독송 정초 칠일기도 : 오후 2시

장소 : 극락전

수목방생법회 : 정초회향일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2월 5일(토)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 극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회향 : 2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입재 : 2월 16일(수)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 2월 18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일시 : 2월 24일(목)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당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 12주기 추모법회

일시 : 2월 26일(토) 오전 11시

장소 : 설법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 원	영가등	10만 원
가족등	10만 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 원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설 합동차례	2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설법전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2월 2일~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정초기도 및 수목방생법회	2월 3일~9일	오전 9시 50분 오후 2시	극락전
다라니기도	2월 5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2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해제	2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1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1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2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법정 스님 추모법회	2월 26일	오전 11시	설법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저녁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